

청대 베이징의 이중 도시(Dual City) 구조와 언어 층위(Language Stratification)의 융합

—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의 혼종성(Hybridity)을 중심으로

민경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도시 구조와 언어의 사회적 분화
 - 1) 이중 도시로서의 청대 베이징: 내성과 외성의 격리
 - 2) 언어 층위와 사회적 방언: 관화와 토화의 위계
3.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언어적 이질성 분석
 - 1) 내성: 기인(旗人) 관화의 형성과 특징
 - 2) 외성: 한인 토화의 계승과 특징
4. 두 언어 층위의 접촉과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형성
 - 1) 격리의 완화와 언어 접촉의 시작
 - 2) 융합(Fusion)과 혼종성(Hybridity)의 탄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대(清代) 베이징 특유의 ‘이중 도시(Dual City)’ 구조가 초래한 언어 층위의 분화와 융합 과정을 역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형성 기제와 혼종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 초기 ‘만한분거(滿漢分居)’ 정책은 베이징을 내성(內城, 기인(旗人))과 외성(外城, 한인(漢人))으로 격리시켜 언어 공동체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분석 결과, 내성은 규범적 위세를 지닌 ‘관화’ 공동체를, 외성은 구어적 경제성과 열화(兒化)를 특징으로 하는 ‘토화’ 공동체를 형성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 중엽 이후 팔기(八旗)의 생계 문제와 ‘기민 혼거(旗民混居)’, 상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및 문화 교류의 확대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치열한 언어 접촉을 촉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베이징 방언이 내성 관화의 ‘음운적 골격’과 외성 토화의 ‘구어적 살’이 전략적으로 타협하며 결합된 ‘중층적 혼종성(Stratified Hybridity)’의 산물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현대 베이징 방언의 정체성은 단일한 계승이나 규범적 순수성이 아닌 역동적인 ‘혼종성’에 있다. 본 연구는 표준어(푸통화)가 내성의 구조적 특징을 선택적으로 계승했음을 시사하며, 베이징이라는 도시 공간을 내성과 외성이 상호 침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온 ‘언어적 접촉지대(Linguistic Contact Zone)’로 재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청대 베이징, 이중 도시, 언어 층위, 혼종성, 내성 관화, 외성 토화, 사회언어학

1.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의 표준인 푸통화(普通話)는 베이징 어음(語音)을 표준음으로 한다고 정의되지만, 실제 푸통화와 지역 방언으로서의 베이징말(北京話)을 단순히 등치시키기에는 그 내부에 복잡한 층위가 존재한다. 엄밀히 말해 이 둘은 규범과 실제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을 이루는 이중적 실체로 보아야 한다. 언어 현장에서 베이징 토박이말은 푸통화 규범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특히 베이징 구어에 빈번한 과도한 열화(兒化)나 빠른 발화 속도에 따른 음운 약화는 화자의 사회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지(Marker)로 작용하며, 이는 보편적 의사소통 도구인 표준어와 구별되는 비표준적 요인들이다. 이러한 베이징 방언의 복합성, 즉 ‘표준적 관화(官話)의 뼈대’와 ‘비표준적 토화(土話)¹⁾의 살’이

1) 일반적으로 ‘토화’는 지방 사투리 혹은 세련되지 못한 시골 말을 일컫는 통칭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 용어는 청대 베이징의 공간적·사회적 특수성 안에서 외성(外城)에 거주하던 한인(漢人) 서민층의 구어를 지칭하는 학술적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내성(內城) 기인(旗人)들의 공용어인 ‘관화(官話)’에 대응하는 기층 언어(Vernacular)로서, 과도한 열화(兒化)와 합음(合音) 현상, 그리고 직설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방언(Social Dialect)의 성격을 띤다.

공존하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시적 기술을 넘어 청대(清代) 베이징 특유의 이중 도시(Dual City)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청은 입관(入關) 직후 만한분거(滿漢分居) 정책을 통해 내성(內城)을 팔기(八旗) 거주 구역으로, 외성(外城)을 한인(漢人) 거주 구역으로 철저히 격리하였는데,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형성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언어 공동체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내성의 기인(旗人) 사회는 만주어 기층 위에 관화를 사용하는 상층 언어(Prestige Variety)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시 서양인들에게 ‘타타르-중국어 방언(Tartar-Chinese Dialect)’으로 인식된 반면, 외성의 민인(民人) 사회는 명초(明初) 이주민의 언어 습관이 잔존한 ‘한인 토화(漢人土話)’라는 기층 언어(Vernacular)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두 언어 층위는 성벽을 경계로 음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실체였으나, 청 중엽 이후 생계 문제로 인한 ‘기민 혼거(旗民混居)’와 일체화 과정은 이러한 물리적·언어적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대 베이징 내 존재했던 내성 관화(內城官話, Inner City Mandarin)와 외성 토화(外城土話, Outer City Vernacular)가 도시 구조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접촉하고 융합하여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혼종성(Hybridity)을 낳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현대 베이징 방언이 단순한 단일 계통의 진화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가 다른 두 언어 층위가 도시 공간의 통합 과정에서 결합된 역사적 산물임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베이징 방언의 형성 과정과 사회 구조를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먼저 역사지리학적 연구들은 도시 구조의 이원화와 거주 패턴의 변동을 규명하였다. 역사지리학계에서는 기민분성거주(旗民分城居住) 정책이 초래한 인구학적 격리를 입증(韓光輝, 1990; 趙寶熹, 2013; 박민수, 2019)하는 한편, 방계(房契) 분석 등을 통해 건륭(乾隆) 연간 이후 빈곤해진 기인들의 가옥 매매로 물리적 격리가 점차 와해되었음을 실증하였다(劉小萌, 1988; 常書紅, 2004).

다만 이들 연구는 사회적 접촉면의 확대가 구체적으로 두 언어 층위(관화와 토화)의 융합에 미친 언어학적 기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

다. 다음으로 언어학적 연구들은 베이징 방언의 역사적 형성과 표준화 시점에 주목하였다. 林燾(1987, 2000)는 내성 기인 언어의 뿌리를 ‘유연(幽燕) 방언’의 재이식 과정으로 고찰하였다. 표준화의 확립 시기와 관련하여 太田辰夫(1969, 2013)와 龔千炎(1994)은 문법 분석을 통해 19세기 중엽을 현대 베이징말의 문법적 토대가 확립된 시기로 보았으며, 張衛東(1998) 역시 1859년 이전을 관화의 표준음이 남경음에서 북경음으로 전환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았다. 이와 궈를 같이하여 郭銳(2018)는 1850년경을 기점으로 베이징 관화가 독자적인 위세를 확립하며 현대 푸통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언어 내부의 혼종성에 대해서는 俞敏(1984), 張世方(2003), 周一民(2011) 등이 기층과 상층의 혼합 양상 및 얼화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각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시 구조의 변동(공간의 섞임)과 언어 층위의 융합(언어의 섞임)을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내성의 표준 지향적 관화와 외성의 구어적 토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 침투하였는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학적 고증과 윌리엄 라보프(William Labov, 2006)가 제시한 언어 층위(Language Stratification)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의 융합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혼종성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견고했던 이중 도시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역사적 필연임을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대 베이징의 도시 구조가 언어 변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학적 고증과 역사 사회언어학(Historical Sociolinguistics)적 분석 방법을 병행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사용 집단(기인/한인)’, ‘사용 영역(문어/구어)’, ‘언어 위계(상층 관화/기층 토화)’라는 기준에 따라 언어 층위를 구분하고, 각 층위가 도시 공간의 변동과 함께 어떻게 접촉·재배치되는지를 고찰한다. 시공간적 범위는 청의 베이징 천도(1644년)부터 신해혁명(1912년)까지로 설정하되, 내성과 외성의 물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언어 융합이 가속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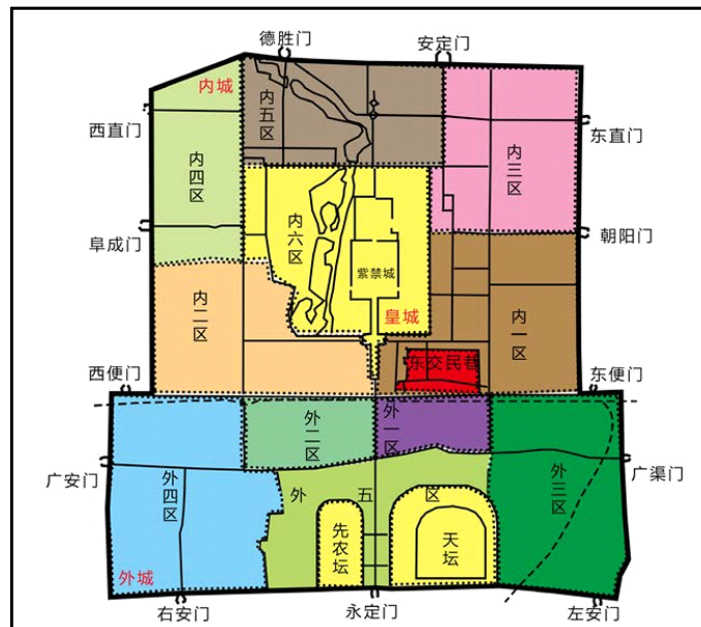
청 중·후기, 특히 건륭·가경(嘉慶) 연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분석 대상 자료는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교차 검증한다. 첫째, 도시 공간 및 인구 변동 자료이다. 『팔기통지(八旗通志)』, 『순천부지(順天府志)』 등의 관변 자료와 劉小萌(1988)이 활용한 방계 데이터를 통해 내·외성의 행정 경계 확정 과정과 기민 혼거 실태를 실증적으로 추적하여 언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토대를 규명한다. 둘째, 상층 언어(내성 관화)를 반영한 문헌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내성 관화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문강(文康)의 소설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과 베이징음의 융합 양상이 정착되기 시작한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의 『언어자이집(語言自邇集)』을 분석하여, 정제된 문법과 명료한 발음을 지향했던 기인(旗人) 사회의 언어 규범을 도출한다. 셋째, 기층 언어(외성 토화)를 반영한 구어 자료이다. 위 텍스트들과 대조하기 위해, 당시 외성 서민들의 언어 습관이 생생하게 기록된 혈후어(歇後語) 자료 및 곡예(曲藝) 대본 등을 분석하여 속어(Slang)와 과도한 열화 등 외성 토화 특유의 비표준적 요소들을 추출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윌리엄 라보프의 언어 층위 이론을 적용하여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의 위계 구조를 도식화하고, 나아가 성벽의 붕괴와 거주지 혼합이 진행됨에 따라 두 언어 층위가 상호 침투하여 현대 베이징 방언 특유의 혼종성을 형성하게 된 변이(Variation) 과정을 언어 내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할 것이다.

2. 도시 구조와 언어의 사회적 분화

언어는 사회적 구조의 투영이며, 도시 공간의 물리적 분할은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의 분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본 장에서는 청대 베이징의 이중 도시 구조가 어떻게 언어 층위의 분화를 낳았는지 고찰한다.

1) 이중 도시로서의 청대 베이징: 내성과 외성의 격리

청나라는 1644년 입관 이후 베이징을 수도로 삼으면서, 정복 왕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을 내성과 외성으로 양분하는 만한분거(滿漢分居) 정책을 실시하였다. 趙寔熹(2013: 143, 157)는 내각대고(內閣大庫) 당안 분석을 통해 이 정책이 단순한 주거 분리를 넘어 도시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획(Functional Zoning)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림 1〉 청대 베이징의 'ㅁ'자형 이중 도시 구조와 주요 성문²⁾

2) 〈그림 1〉은 王陽(2023: 13)의 '그림1-2'를 인용한 것이다. 이 지도는 북쪽의 내성(기인 거주구)과 남쪽의 외성(한인 거주구)이 성벽을 경계로 격리된 'ㅁ'자형 이원적 도시 구조를 보여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청 말기에 형성된 대사관구역(동교민항(東交民

여기에 曹樹基(2022: 26-29)의 이민사적(移民史的) 관점을 더하면, 내성의 비워진 공간은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니라 만주 이민자들에 의해 ‘인구 교체(Population Replacement)’가 이루어진 새로운 언어 공동체의 터전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청군의 입관과 베이징 점령은 팔기(八旗) 전체가 이동한 대규모의 ‘무장 이민(Armed Migration)’이었으며, 내성의 한인 축출은 기존 언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소거하고 그 위에 ‘만주어 기층-관화’라는 새로운 언어 층위를 이식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박민수의 연구(2019: 319, 322-323)에 따르면, 섭정왕 도르곤(Dorgon, 多爾袞)은 순치(順治) 원년(1644) 5월 2일 베이징 점령 직후 내성의 한인들을 모두 외성으로 축출하고 그 공간을 팔기에게 분배하는 권지(圈地)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내성은 토착민이 사라진 자리에 이주민(기인)만이 남게 된 ‘타타르 성(Tartar City)’이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고밀도의 병영 도시(Garrison)로 변모하였고, 이는 내성 관화가 독자적인 ‘코이네화(Koineization)’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폐쇄적 인구 환경을 제공하였다. 韓光輝(1990: 136-137)의 인구 통계 분석 또한 내성이 기적(旗籍)을 가진 기인들이 밀집된 군사적 공간이었음을 입증한다. 반면, 외성은 베이징 한인, 한인 관료 및 상인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다. 내성이 정치와 소비의 중심지였다면, 외성은 전문대가(前門大街)와 대책란(大柵欄)을 중심으로 상업과 유흥이 결합된 경제·문화적 생산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분리는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도 나타났다. 박민수(2024: 70-73)에 따르면 내성의 치안과 방위는 만주인만 임명되는 만결(滿缺)인 보군통령아문(步軍統領衙門, 일명 구문제독)이 담당하였고, 외성은 순천부(順天府)와 연계된 민정 중심의 오성어사(五城御史)가 관할하였다³⁾. <그림 1>에서 볼 수 있

巷)으로, 이는 4장에서 논의할 공간 재편 및 언어 융합의 물리적 거점이 되었다.

3) 보군통령아문(步軍統領衙門): 청대 베이징의 치안과 위수(경비)를 총괄하던 핵심 군사 기구이다. 주로 팔기(八旗) 출신의 고위 관료가 수장을 맡았으며, 내성의 성문과 황성의 경비를 독점했다. ·오성어사(五城御史): 청대 베이징의 행정 구역을 동·서·남·북·중 5개 구역(五城)으로 나누어 감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던 관직이다. 보군통령아문이 군사적 성격이

듯이, 베이징은 내성과 외성이 성벽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된 ‘凸’자형 이중 도시(Dual City)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분리를 넘어,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통제 기제로 작동하며 언어 공동체를 완벽히 격리시켰다. 홍영미(2025: 163-164)에 따르면, 당시 민중들은 베이징의 구조를 “큰 원(외성) 안에 작은 원(내성)이 있고, 그 안에 황색 원(자금성)이 있다”고 인식할 만큼,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위계가 존재했다. 특히 물리적 단절은 매우 엄격했는데, 내·외성을 연결하는 정양문(正陽門), 숭문문(崇文門), 선무문(宣武門)은 저녁 6~7시면 자물쇠가 채워졌고, 자정에야 관원을 위해 다시 열렸다. 이러한 물리적 차단과 야간 통행 제한은 내성의 ‘관화’와 외성의 ‘토화’가 섞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기제였다. 이는 내성의 표준 지향적 관화와 외성의 토속적 토화가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진화하게 된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2) 언어 층위와 사회적 방언: 관화와 토화의 위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청대 베이징의 언어 구조는 단순한 지역 방언의 차이를 넘어, 이중 도시 구조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위계(Social Hierarchy)를 반영하는 언어 층위 모델로 설명된다. 윌리엄 라보프(2006)의 변이 이론에 따르면, 언어 변이형은 화자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위세(Prestige)의 차이를 갖는다. 라보프(2006: 41, 129-130)가 지적했듯 사회적 지위와 언어 변이형 사이에는 정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정 변이형이 높은 위세를 획득함으로써 계급적 위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르면 청대 베이징은 내성과 외성이 각각 상층과 기층을 점유하는 양층 언어(Diglossia)적 성격을 띠었다.

첫째, 사회적 방언의 상층부는 내성 기인들이 구사하던 ‘기인 관화(旗人官話)’가 점유하였다. 李焱·孟繁傑(2024: 208)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서양인

강했다면, 오성어사는 민사, 사법, 치안을 담당했다. 특히 외성의 한인 거주 구역에 대한 행정 관리가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들은 이를 관청과 상류 사회에서 통용되는 ‘타타르-중국어 방언(Tartar-Chinese Dialect)’으로 칭하며, 외성과 명확히 구분되는 표준으로 인식하였다. 關紀新(2007: 84)은 이를 만주인들이 한어(漢語)를 습득하며 재창조한 ‘한어경강(漢語京腔)’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철저히 문어(Written Language)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언어였다. 내성의 기인 남성들은 대부분 관료나 군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관학(官學)을 통해 정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어(Spoken Language)는 발음이 또렷하고 어휘가 격식 있는, 즉 찰스 퍼거슨(Charles Ferguson)이 정의한 고변이형(High Variety)의 특징을 띠 수밖에 없었다.⁴⁾

둘째, 기층부는 외성 서민들이 사용하던 ‘한인 토화’가 형성하였다. 俞敏(1984: 272-273)은 이를 명초 이주민 방언이 잔존한 ‘대허베이방언(大河北方言)’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내성 관화와 음운적으로 구별되는 변이형임을 밝혔다. 특히 입성(入聲) 처리에 있어, 내성 기인들은 중고 전탁 성모(中古全濁聲母) 이외의 입성자(入聲字)를 주로 상성(上聲)으로 읽는 반면, 외성을 포함한 대허베이방언권에서는 이를 음평(陰平)으로 읽는 경향(예: 塔[t'a], 鐵[t'ie])이 뚜렷했다. 또한 외성 토화는 구어의 경제성을 추구하여 과도한 열화를 사용했는데, 周一民(2011: 74)과 張世方(2003: 27)은 이것이 단순한 음운 현상을 넘어 화자의 계층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표지(Social Marker)로 기능했음을 지적하였다. 내성 기인들은 이를 ‘기름진 말(油滑)’이라 경계했으나, 외성 서민 사회에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제였다.

셋째, 이 두 층위 사이에는 ‘남청관화(藍靑官話)⁵⁾’라 불리는 중간 지대가

4) 찰스 퍼거슨(Charles A. Ferguson)은 한 언어 사회 내에 두 가지 변이형이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를 고변이형(High Variety, H)과 저변이형(Low Variety, L)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변이형(H)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되고, 종교·정치·교육 등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되며, 문법과 어휘가 고도로 표준화되어 높은 사회적 위세(Prestige)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C. A. Ferguson, 「Diglossia」, 『Word』, Vol. 15, Issue 2, 1959년, pp. 325-340)

5) ‘藍靑’의 표면상 의미는 ‘既非純藍, 亦非純綠’로서 ‘순수하지 않음’을 가리킨다.(Richard VanNess Simmons 저, 張艷紅·單秀波 역, 2016年 第2期, p. 5)

존재하였다. 蔣紹愚(2019: 67-68)는 이것이 관화와 토화가 섞인 혼종적 형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근대 이전까지 베이징의 언어 상황은 내성의 표준 지향적 관화와 외성의 토속적 토화가 성벽을 경계로 위계적 공존을 이루는 양상이었으며, 현대 베이징 방언의 복합성은 훗날 이 견고했던 위계 구조가 무너지고, 기층 언어(토화)의 변이형이 상층 언어(관화) 내부로 지속적으로 침투·누적되면서 혼종화(Hybridization)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3.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언어적 이질성 분석

청대 베이징의 이중 도시 구조는 거주민의 신분적 격리를 넘어 언어 습관의 뚜렷한 이질성(Heterogeneity)을 초래하였다. 본 장에서는 문헌 기록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두 언어 층위가 보인 음운적, 사회적 특징을 분석한다.

1) 내성: 기인(旗人) 관화의 형성과 특징

내성은 황실과 팔기 군영이 위치한 공간으로, 이곳의 언어는 만주족을 위시한 기인(旗人) 사회의 정체성을 대변하였다. 청 초기의 만한분거(滿漢分居) 정책은 한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기제였으며, 이러한 폐쇄적 환경 속에서 기인들은 독자적인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첫째, 내성의 언어는 만주어 기층 위에 한어를 덧입혀 재창조한 ‘한어경장’이었다. 胡明揚(1987: 10)이 지적했듯, 청초 내성 거주민의 강제 이주(한인 축출 및 팔기군 입성)는 베이징 언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러한 인구의 전면적 교체가 베이징말의 연변에 필연적인 흔적을 남겼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내성 언어가 기존 베이징 토박이말의 연속성이 단절된 ‘진공 상태’에서 새롭게 이식된 언어임을 시사한다. 林燾(2000: 22)는 내성 기인 언어의 뿌리를 요(遼)·금(金) 시대의 ‘유연(幽燕) 방언’에서 찾는다. 그에 따

르면, 과거 동베이(東北)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사용하던 베이징 일대의 방언이 알타이계 언어와 섞여 팔기 공용어가 되었고, 이것이 청의 입관과 함께 본토로 귀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단순한 개조가 아닌 ‘두 번째 언어 회귀(Language Return)’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즉, 내성 언어(귀환한 방언)와 외성 언어(토착화된 방언)는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거쳐 재회한 셈이다. 이들은 입관 후 행정 실무를 위해 점차 한어를 모국어화하였다. 張菊玲(1994: 73, 77)의 분석에 따르면, 이때 만주인들이 구사한 언어는 저자거리의 ‘속된 토화(市井之談)’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선별하고 가공(烹煉)하여 ‘우아한 운치(雅韻)’와 ‘맑고 깨끗함(淸脆)’을 갖춘 ‘고귀한 언어(高貴語言)’로 재창조한 것이었다. 즉, 내성 기인 사회는 거친 구어를 세련된 상층 언어로 변환시키는 ‘여과 장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렇게 정제된 언어는 서양인들에게 표준어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였다.

둘째, 기인 관화는 문어의 규범이 구어를 통제하는 상층 언어였다. 당시 기인 남성들은 관료나 군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단순한 구전 습득이 아니라 제도화된 ‘팔기 관학(八旗官學)’과 ‘종학(宗學)’을 통해 체계적인 한어 교육을 받았다. 關紀新(2007: 84-85)은 이러한 과정을 만주족이 한어를 습득하며 발음과 어휘를 철저히 ‘모방’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 특징을 더해 ‘재창조(重塑)’한 단계로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베이징 내성의 언어(경강)가 ‘맑고 깨끗하다(淸脆)’는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내성 기인들의 문자(文字) 중심의 학습과 경서(經書) 낭독 훈련이 구어에 전이되어 글자마다의 성모와 운모를 또렷이 발음하는 습관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에 의해 음을 뭉개는 외성 토화의 연음(Liason) 현상을 억제하고, 내성 관화가 ‘책을 읽는 듯한’ 명료성을 유지하게 만든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는 기인 작가 문강의 소설 『아녀영웅전』에 잘 드러난다. 龔千炎(1994: 27-31)은 처치문(把字句)과 피동문(被動式) 등의 문법 구조가 『홍루몽』보다 현대 베이징말에 더 근접했음을 밝혔고, 太田辰夫(2013: 353-354)는 어휘 표지(Marker)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현대 표준

어의 어휘적 특징을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내성 관화가 구어의 생동감을 유지하면서도, 문법적·어휘적으로 정제된(Refined) 표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즉, 내성 관화의 ‘명료성’과 ‘비(非)얼화’ 경향은 외부 방언의 영향이 아니라, 기인 사회 내부의 ‘문어 지향적 교육 시스템’과 ‘공적 화법(Public Speech)’의 요구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입성 처리에서 독자적인 규칙을 형성하여 외성 토화와 구별되었다. 俞敏(1984: 272-273)의 분석에 따르면, 청초 기인들은 중고 전탁 성모 이외의 입성자를 상성으로 읽는 경향이 강했다(예: 節→姐, 國→果). 반면, 외성을 포함한 대허베이방언권에서는 ‘塔’이나 ‘鐵’ 등을 음평으로 읽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이는 청대 베이징말이 기인의 ‘상성 귀속’ 규칙과 토착민의 ‘음평 귀속’ 규칙이 공존하는 이중적 음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두 언어 층위가 성벽을 경계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넷째,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도 자체적인 음운 표준을 확립해 나갔다. 張衛東(2002: 16-21)은 1867년경의 베이징음이 남방 관화(구 표준)와 신 표준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입성운(入聲韻)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質, 室’ 등의 글자가 3~4가지 성조로 읽히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베이징 관화는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음운 규칙을 형성해 나갔다. 예컨대 ‘學’자의 경우, 당시 우세했던 남방음[hsio]이나 동북음[hsiao]을 따르지 않고 베이징 내부에서 발달한 발음인 [hsüeh]를 표준으로 정착시켰다⁶⁾. 결론적으로 『언어자이집』의 기록은 내성 관화가 남방 관화나 주변 방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문어적 합리성과 내부 규칙에 따라 표준 지향적인 독자적 변이형으로 진화해 나갔음을 입증한다.

6) 웨이드-자일스(Wade-Giles) 표기인 [hsio], [hsiao], [hsüeh]는 국제음성기호(IPA)로 각각 [eio], [eiao], [eue]로 전사할 수 있다.

2) 외성: 한인 토화의 계승과 특징

외성은 내성에서 축출된 한인 관료와 상인, 그리고 서민들이 모여 살던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베이징 토착민들의 언어인 ‘토화’가 계승되었다. 俞敏(1984: 272, 274)은 이를 옛(古) 베이징말 혹은 ‘대허베이방언’의 일종으로 칭하며,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 이주민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베이징 음계의 성장이 단선적인 발달이 아니라 명초 이주민 방언과 청초 만주족 언어가 섞이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외성 토화가 바로 그 기층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외성 토화는 전형적인 기층 언어로서 구어 중심의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 베이징 후통(胡同) 지역의 서민들 사이에 만연했던 ‘글자 줄이기(省字)’ 및 ‘합음(合音)’, 그리고 ‘어미 끝기(尾音)’와 ‘경성(輕聲)’ 현상이다⁷⁾. 桂明超·劉濤(2011: 2, 4)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발음의 축약이 아니라 문법적·의미론적 층위에서 의미를 변별하는 고유한 독자적 체계였다. 그러나 당시 언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후통 특유의 발음 습관을 표준어 학습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했는데, 이는 외성 토화가 내성 관화의 ‘명료성’과 대비되는 ‘비표준적 변이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업과 유흥이 발달한 외성의 분주한 환경 속에서, 화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성모(聲母)나 운모(韻母)를 탈락시키거나 인접한 음절을 하나로 뭉개어 발음하는 경향이 강했다. 張衛東(2002: 23)이 분석한 19세기 토마스 웨이드의 『언어자이집』에는 ‘胡同’이 ‘老

7) ‘글자 줄이기(省字)’는 베이징 토화의 전형적인 ‘성분 생략’ 현상의 총칭이며(예: “你今天吃了嗎?”→“今兒吃了嗎?”), ‘합음(合音)’은 ‘省字’의 한 유형(어휘 층위에서의 합음 및 병합)이다(예: 不用[búyòng]→甬[béng]). ‘어미 끝기(尾音)’의 특징은 주로 단어의 끝에 ‘兒’를 덧붙이는 ‘얼화(兒化)’ 현상을 가리킨다(예: 門→門兒, 事→事兒). ‘경성(輕聲)’은 특정 글자를 가볍고 짧게 발음하는 현상으로, 베이징 토박이말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강세 변화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예: 東西: [dōngxī]는 ‘동쪽과 서쪽’(방향), [dōngxī]는 ‘물건’(사물)을 의미한다).

虎洞'으로 와전되거나 성조가 변하는 등 당시 외성 언어의 역동적이고 비표준적인 변이 양상이 구체적으로 포착된다. 이는 문어의 규범에 따라 또렷한 발음을 지향했던 내성 관화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둘째, 얼화의 과잉 사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표출하였다. 張世方(2003: 2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베이징말의 얼화운 형성은 주변 방언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핵심은 얼화의 양적 차이가 아닌 '기능적 층위'이다. 내성 관화가 명사화나 지소(Diminutive) 등 '문법적 얼화'에 한정하여 절제된 사용을 보인 반면, 외성 토화는 '습관적 얼화'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외성 서민들은 '門'을 '門兒'로, '事'를 '事兒'로 발음하는 등 일상 어휘에 습관적으로 얼화를 붙였다. 林燾(2000: 24)가 제시한 '冤兒爺(달 토끼 인형)' 사례는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성 기인들이 이를 [tù er yé]라고 각각의 음절 구조를 명확히 유지하여 발음한 반면, 외성 한인들은 [tùr yé]라고 강하게 얼화하며 음운을 탈락시켰다. 이는 얼화가 단순한 음운 현상을 넘어, 외성 서민 사회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베이징 토박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회적 표지로 기능했음을 입증한다.

셋째, 음운론적으로 입성자의 귀속 양상이 달랐다. 외성을 포함한 대허베이 방언권에서는 중고 전탁 성모가 아닌 입성자를 주로 음평으로 읽는 경향이 있었다(예: 塔, 鐵 등). 이는 입성자를 상성으로 읽는 내성 기인들의 발음 습관(예: 節→姐, 國→果 등)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俞敏(1984: 274)은 이러한 차이가 베이징 음계 내의 모순을 야기했다고 보았으며, 이는 두 언어 공동체가 성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음운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결국 청대 베이징의 언어 지형은 성벽을 경계로 내성의 명료하고 절제된 관화(High Variety)와 외성의 빠르고 기교적인 토화(Low Variety)가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띠었다. 경사(京師)⁸⁾의 행정 체계가 내성(보군통령아문(步

8) 청나라 시기 공식 문헌이나 행정 문서에서는 베이징을 단순히 '北京'이라 부르기도, 황제가 있는 수도라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京師'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軍統領衙門))과 외성(오성어사(五城御史))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처럼, 언어 공동체 또한 철저히 분리되어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이다.

<표 1> 청대 베이징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의 언어적 특징 비교

구분	내성(內城): 기인(旗人) 사회	외성(外城): 민인(民人) 사회
주요 거주민	황족, 팔기(八旗) 군인 및 그 가족 (기적 보유자)	한인 관료, 상인, 수공업자, 서민 (내성 축출자 및 이주민)
언어 명칭	타타르-중국어 방언(Tartar-Chinese Dialect), 한어경강(漢語京腔), 베이징 관화 (Peking Mandarin)	한인 토화(漢人土話), 대허베이방언 (大河北方言)
사회언어학적 지위	상층 언어(Prestige Variety): 위세가 높은 표준 지향적 변이형	기층 언어(Vernacular): 친밀감과 유대감을 위한 비표준적 변이형
형성 배경	만주어 기층 위에 한어를 습득하여 재창조 (문어 영향)	명초 이주민 방언의 잔존 및 토착화 (구어 중심)
음운 특징: 발음 태도	발음이 뚜렷하고 명료함, 과도한 연음 자체	글자 줄이기(省字)와 탄음(吞音) 빈번 (예: 胡同→老虎洞)
음운 특징: 열화(兒化)	절제된 열화, 주로 문법적 기능(지소사)에 한정됨	과도하고 습관적인 열화, 정서적 태도 표출 및 '토박이' 정체성 과시 (예: 門兒, 事兒)
음운 특징: 입성(入聲) 처리	중고 전탁 성모 외 입성자가 상성(上聲)으로 변함 (예: 節→姐, 國→果 등)	중고 전탁 성모 외 입성자가 음평(陰平)으로 변함 (예: 塔, 鐵 등)
문법 및 어휘	문어체(Written Style)의 영향, 점잖고 격식 있는 어휘 선택	구어체(Spoken Style)의 경제성 추구, 속어(Slang), 험후어(歇後語), 기름진 말투(油滑)
대표 문헌/자료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문강) 및 당시 서양인 기록	『언어자이집(語言自邇集)』 내 구어 기록(T. Wade), 베이징 험후어 및 곡예 대본

4. 두 언어 층위의 접촉과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형성

청대 베이징의 이중 도시 구조는 영구적이지 않았다. 청 중엽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기인 관화’와 ‘한인 토화’ 간의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과 융합(Fusion)을 초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러한 융합의 기제를 규명하고, 그 결과물인 현대 베이징 방언이 갖는 혼종성의 실체를 분석한다.

1) 격리의 완화와 언어 접촉의 시작

내성과 외성 사이의 견고했던 장벽은 청 중기 이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청 말기에 이르러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 1900년 이후 경봉선(京奉線) 등 철도 부설을 위해 영정문 성벽과 승문문 옹성에 구멍이 뚫리고, 황제만 통행하던 정양문이 일반 교통로로 개방된 사건은 상징적이다(홍영미, 2025: 172-173). 이러한 성벽의 물리적 붕괴는 곧 언어적 방어막의 해체를 의미한다. 철도가 성벽을 관통하여 사람을 실어 날랐듯, 견고했던 내성 관화의 성벽 안으로 외성 토화가 거침없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치 집단의 정책적 의도보다는 팔기 생계(八旗生計) 문제라는 사회·경제적 필연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기인 관화와 한인 토화가 섞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첫째, 팔기 빈곤화와 한군 출기(漢軍出旗) 정책에 따른 거주지 혼재(Mixed Residence)의 가속화이다. 견고했던 만한분거의 원칙은 건륭 7년(1742)부터 시행된 한군 출기 정책으로 인해 내성 인구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적에서 제명된 다수의 한군들이 민인 신분으로 외성이나 내성 외곽으로 방출되면서, 내성 언어와 외성 언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하급 기인들이 급증하면서 내성의 배타성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劉小萌(1988: 46)의 방계 분석에 따르면, 기인들은 관청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내성의 가옥을 민인 상인들에게 전당(典) 잡혀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정부가 기인들의 가옥을 되찾아주는 회속(回贖) 정책을 여러 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륭 말기에 이르면 내성 가옥의 실질적 소유권이 경제력을 갖춘 민인에게 넘어가는 현상이 고착화되

었다. 도광(道光) 연간에 이르면 내성은 이미 기인과 민인이 뒤섞여 사는 잡거(雜居)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내성 관화의 청정 구역 내에 외성 토화 화자들이 물리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기인들이 생존을 위해 민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동화, 즉 민인들의 언어 습관을 수용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둘째, 상업 활동과 문화 향유를 매개로 한 언어 교류의 확대이다. 내성 기인들은 법적으로 상업 종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은밀히 장사에 뛰어들거나 외성 상인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중요한 기제는 문화적 접촉의 확대였다. 關紀新(2007: 83)에 따르면, 청대 베이징의 기인들은 정치적 제약과 직업 선택의 부자유로 인한 정신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경극(京劇), 곡예(曲藝), 소설 등 대중문화에 심취하였다. 내성의 기인들, 특히 자제(子弟) 계층이 외성의 회원(戲員)과 찻집(茶館)을 빈번히 출입하게 되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기인과 한인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접촉면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청 말기 등장한 근대적 ‘공원’은 언어 융합의 새로운 용광로가 되었다. 1907년 만생원(萬牲園, 현 베이징동물원)과 농사시험장이 개방되면서 황실의 금역은 대중적 유희 공간으로 변모했다. 초기에는 남녀 입장일이 달랐으나 1908년부터는 남녀노소와 신분을 불문하고 누구나 입장이 가능해졌다(홍영미, 2025: 176-177). 이러한 개방된 공공 공간에서 기인과 한인은 격식 없이 어우러졌고, 이는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구어적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인 자제들은 희곡 대사와 찻집, 그리고 공원에서의 대화 속에 포함된 외성 토화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발음, 혈후어(歇後語), 그리고 거친 속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당시 기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내성의 점잖은 관화 대신 외성의 기교 넘치고 기름진(油滑) 말투를 흉내 내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자 멋으로 통했다. 이는 내성의 고상한 관화가 외성의 저속한 토화에 침식당하는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현대 베이징 방언 특유의 구어적 스타일이 형성되는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였다.

2) 융합(Fusion)과 혼종성(Hybridity)의 탄생

현대 베이징 방언은 내성 관화가 외성 토화를 일방적으로 흡수한 것도, 외성 토화가 내성 관화를 완전히 대체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두 언어 층위가 상호 침투하여 형성된 일종의 혼종적 결과물이다. 張衛東(1998: 96-97)은 관화의 표준음이 난징음에서 베이징음으로 전환되는 질적 변화가 1859년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기적 판단을 바탕으로 郭銳(2018: 3-4)는 특히 1850년부터 민국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베이징말 자료들이 난징 관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매우 ‘순수한 베이징적인 색채(京味)’를 띠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1850년경을 기점으로 베이징 관화가 독자적인 위세를 확립하며 현대 푸통화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뒷받침한다. 19세기 중엽이 내성 관화와 외성 토화가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내부적으로 섞이는 ‘화학적 융합기’였다면, 1900년 의화단 운동 이후는 서구 열강에 의해 도시 구조가 강제로 재편되는 ‘물리적 해체기’였다. 대사관구역(Legation Quarter)⁹⁾이 ‘신도시’로서 독자적인 성벽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통적인 황도(皇都)의 질서를 위협하는 동안, 기존의 내·외성 경계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홍영미, 2025: 171). 이 혼란의 시기에 내성 관화는 권위를 잃은 성벽처럼 외성 토화의 침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베이징 방언은 오늘날과 같은 복합적인 혼종성을 완성하게 되었다.

첫째, 음운적 기골(Skeleton)은 내성 관화의 표준성을 따랐다¹⁰⁾. 關紀新

9) 대사관구역은 동교민항(東交民巷) 일대를 지칭한다. 1901년 체결된 「신축조약(辛丑條約)」에 따라 이 지역은 중국인의 거주가 금지되고 각국 공사관이 자체적으로 행정, 치안, 방어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10) 위민(俞敏, 1984: 277)은 만주어가 베이징 방언에 ‘沙琪瑪’, ‘福晉’ 등 다수의 어휘적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하나,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것(만주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至于音系麼, 倒沒受它什麼影響)’고 단언하였다. 이는 내성 관화가 이민족 통치 계급의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음운 구조(뼈대)만큼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2007: 84)은 현대 베이징말의 근간이 되는 경강(京腔)이 만주인들이 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만주어의 발음 습관에 맞춰 재창조한 언어라고 정의한다. 林燾(1987: 7)가 지적한 ‘구조적 간소화(Simplification)’는 내성 관화가 현대 푸통화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이다. 다민족 통치 계급의 공용어(Koine)로 기능했던 내성 관화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복잡한 성조 연음이나 불필요한 음운 변동을 제거하는 ‘코이네화(Koineization)’ 과정을 겪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외성 토화에서 나타나는 발화 속도에 의한 ‘음성적 축약(Phonetic Reduction)’이나 ‘탄음(呑音)’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외성의 축약이 발음을 뭉개는 비표준적 변이었다면, 내성의 간소화는 규칙을 정비하여 명료성을 높이는 ‘체계적 단순화’였다. 따라서 현대 푸통화가 명료한 음운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내성 기인 사회가 공유했던 ‘공적 언어로서의 명료성’이 외성 토화의 간섭을 이겨내고 표준의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李焱·孟繁傑(2024: 208-209)의 문헌 분석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서양 외교관들은 베이징 내성의 언어를 단순한 지역 방언이 아닌, 제국의 통치 계급이 구사하는 국가적 표준어이자 위세 방언(Prestige Dialect)으로 명확히 인식하였다. 예컨대 메도우스(T. T. Meadows, 1847)는 베이징의 언어가 중국 내에서 갖는 위상을 영국의 런던 영어나 프랑스의 파리 프랑스어에 비유하며 그 권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토마스 웨이드는 1867년 『언어자이집』 서문에서 베이징 관화를 ‘이 나라의 표준 구어(該國의標準口語, the standard spoken language)’로 규정하였으며, 이 저술의 주요 목적이 영국 주중(駐中) 외교관을 포함한 영사 인력에게 중국의 정부 구어(spoken government language)를 교육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기록은 내성 관화가 외성 토화와의 융합 과정에서도 ‘학습해야 할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혼종화 과정에서 내성 관화가 음운적 뼈대(Skeleton)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동력이 ‘정치적 위세(Prestige)’에 있었음을 실증한다.

둘째, 구어적 살(Flesh)은 외성 토화의 습관을 대폭 수용하였다. 현대 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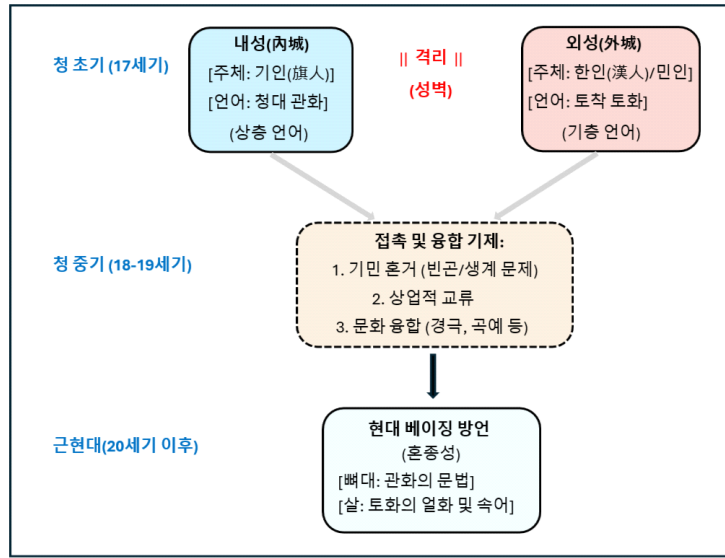
징 방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과도한 얼화와 경성 현상은 본래 외성 서민들의 언어 습관과 주변 방언의 영향이 결합된 산물이다. 張世方(2003: 26-27)은 베이징말의 얼화운이 베이징 고유의 산물이 아니라, 베이징 주변 방언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했음을 지적하였다. 周一民(2011: 72-73)은 얼화가 단순한 문법 현상을 넘어 화자의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를 반영하는 표지임을 밝혔다. 그는 얼화가 ‘소박하고 속된(平俗)’ 언어 내용을 ‘장난기(俏皮)’와 ‘정취(風趣)’가 넘치는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지적한다. 내성 기인들은 외성 서민 문화를 향유하며 이러한 기제를 수용했고, 이는 베이징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俞敏(1984: 272) 또한 현대 베이징 음계의 성장이 순수한 내부 발전이 아니라 주변 방언(대허베이방언)의 지속적인 간섭을 받은 결과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베이징말 내부에 존재하는 불규칙하고 ‘잡란(雜亂)’한 음운 현상을 그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내성의 점잖은 말투가 외성의 빠르고 기교적인 말투 및 주변 방언의 간섭을 받아 변용(Modification)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휘와 문법 차원에서의 융합과 진화이다. 현대 베이징 방언에는 만주어(Manchu) 기원의 차용어와 외성 한인들의 속어가 뒤섞여 있다. 張菊玲(1994: 72-73, 77)은 ‘沙琪瑪’, ‘貝勒’ 등 만주어 차용어가 베이징말에 깊숙이 들어와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300년에 걸친 만한(滿漢) 문화 융합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문법적으로는 龔千炎(1994: 27-31)이 분석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의 소설 『아녀영웅전』에서 현대 베이징말의 문법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 텍스트는 수식 구조의 정교화와 보어 구문의 고도화를 통해 내성 관화가 현대 표준어의 구조적 뼈대를 형성했음을 실증한다. 예컨대 제1회의 “這部書……的壹樁公案”과 같은 긴 대구(對句) 형식의 관형어나, “點綴結構得幽雅不俗”과 같이 복수의 동사가 하나의 보어를 공유하는 형태는 의미를 구조화하는 ‘코이네화’의 증거이다. 동시에 “走不得(갈 수 없다)”와 같은 구어적 가능 보어의 빈번한 등장은 내성의 관화가 외성의 생동감 넘치는 토화를 흡수하며 혼종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기인 작가가 구사하는 관화(내성 언어)와 당시 유행하던 구어(외성 언어)가 융합된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며, 太田辰夫(196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청대 베이징말이 현대 중국어 문법의 완성을 이루는 시기였음을 뒷받침한다.¹¹⁾

넷째, 융합의 양상은 俞敏(1984: 274)이 제시한 ‘염색된 천’의 비유로 요약된다. 그는 베이징말의 형성을 “마치 한 조각의 흰 천(白布)에 바탕색(底色)을 입히고 다시 무늬(花兒)를 찍은 것”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흰 천’은 기층 언어인 대허베이방언(외성 토화)을, 그 위에 찍힌 ‘무늬’는 이주해 온 내성 기인들의 언어(관화)를 상징한다. 즉, 현대 베이징 방언은 기층 언어가 소멸하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기층의 흰 천 위에 새로운 무늬가 덧입혀진 이중적 층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俞敏은 입성의 변화에서 이러한 ‘흰 실’의 흔적을 찾는다. 앞서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내성 기인의 발음 습관이 투영된 정음 체계에서는 입성자가 주로 상성으로 귀속되었으나, 구어에서는 외성 서민들의 습관대로 음평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여전히 화석처럼 박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늬 사이로 드러난 ‘흰 실’, 즉 기층 토화의 완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언어적 혼합을 넘어선다.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혼종성은 단순한 물리적 혼합이 아니라, ‘구조적 표준화(내성)’와 ‘사회적 친밀성(외성)’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이다. 내성 관화는 공적 위세를 위해 음운적 기골을 유지했으나, 청 말기 기인 사회의 해체 과정에서 내부적 결속력을 상실하자 외성 토화의 구어적 살을 ‘베이징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구축의 도구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즉, 베이징 방언의 혼종성은 체계적 단순화와 사회적 표지의 누적이 동시에 일어난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11) 佐藤晴彦, 「太田辰夫先生對清代北京話研究的貢獻」, 『語言學論叢』, 2018年 第58期, p. 348.



<그림 2> 청대 베이징 언어 층위 분화 및 혼종화

5. 맺음말

본 연구는 청대 베이징의 공간 구조와 언어 층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현대 베이징 방언이 단일한 계승이 아닌 역동적인 융합의 산물임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 베이징 방언의 혼종성은 단순한 물리적 혼합이 아니라, ‘구조적 표준화(내성)’와 ‘사회적 친밀성(외성)’의 전략적 타협임이 밝혀졌다. 즉, 현대 베이징 방언은 내성 관화의 음운적 기골(Skeleton) 위에 외성 토화의 구어적 살(Style)이 증층적으로 결합된 ‘혼종적 실체’이다. 특히 입성(入聲)의 귀속 양상 등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변이는 이러한 두 층위가 여전히 경합하고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적 증거이다.

이러한 분석은 ‘푸통화는 베이징 어음을 표준음으로 한다’는 명제의 역사적 함의를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가 표준어(푸통화)는 베이

징 어음의 '체계(System)'를 중시했으나, 베이징 구어에 내재한 비표준적 특징은 배제하였다. 이는 표준어가 형성 과정에서 내성의 '구조적 뼈대'를 선택적으로 계승했음을 시사한다. 즉, 현대 베이징 토박이말에 남아 있는 과도한 열화나 탄음과 같은 비표준적 요소는 외성 토화의 유산이며, 명료한 성조 체계와 같은 표준적 요소는 내성 관화의 유산임을 역사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결국 현대 베이징 방언이 지닌 이중성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 베이징이라는 도시 공간이 겪어낸 '격리와 융합'의 역사가 언어에 온전히 투영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베이징 방언의 정체성은 '규범적 순수성'이 아니라 '역동적 혼종성'에 있다. 성벽이 무너지고 기인과 한인이 섞이는 과정에서, 내성의 권위적인 표준어는 외성의 생동감 넘치는 생활어와 타협하며 오늘날의 살아 있는 언어로 진화하였다. 이는 체계적 단순화와 사회적 표지의 누적이 교차한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준 중국어의 형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정의를 넘어, 내성(Structure)과 외성(Style)이 서로를 끊임없이 침투하며 만들어낸 역동적인 '언어적 접촉지대(Linguistic Contact Zone)'로서의 베이징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參考文獻

- 박민수, 「清的 北京 遷都와 만주의 北京 移住」, 『明清史研究』, 2019년, 51.
- 박민수, 「청대 전기 ‘北京 수도권’의 형성과 재편」, 『明清史研究』, 2024년, 61.
- 홍영미, 「청말(清末) 북경의 도시공간구조와 경관 담론의 변화」,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25년, 39.
- 常書紅, 「清代北京的旗、民一體化進程--兼論北京滿漢文化的交融」,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1期.
- 龔千炎, 「『兒女英雄傳』是『紅樓夢』通向現代北京話的中途站」, 『語文研究』, 1994年 第1期.
- 葛劍雄(主編), 曹樹基(著), 『中國移民史-清時期』,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2.
- 關紀新, 「滿族對北京的文化奉獻」, 『北京社會科學』, 2007年 第3期.
- 桂明超, 「普通話和北京話之間存在的根本區別」, 『雲南師範大學學報』, 2011年, 第9(1)期.
- 郭 銳, 「早期北京話在漢語史和現代漢語研究中的重要性」, 『語言學論叢』, 2018年 第58期.
- 韓光輝, 「清代北京地區人口的區域構成」, 『中國歷史地理論叢』, 1990年 第4期.
- 胡明揚, 『北京話初探』, 商務印書館, 1987.
- 蔣紹愚, 「北京話和普通話」, 『語言戰略研究』, 2019年 第6期.
- 李 焱·孟繁傑, 「從泰西視角看清中後期北京話與官話的關係」,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24年, 第64(1)期.
- 林 燾, 「北京官話溯源」, 『中國語文』, 1987年 第3期.
- 林 燾, 『普通話和北京話』, 語文出版社, 2000.
- 劉小萌, 「清代北京內城居民的分布格局與變遷」,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8年 第2期.
- 太田辰夫, 「論清代北京話」, 『語言學論叢』, 2013年 第48期.
- 俞 敏, 「北京音系的成長和它受的周圍影響」, 『方言』, 1984年 第4期.
- 張菊玲, 「滿族和北京話--論三百年來滿漢文化交融」, 『文藝爭鳴』, 1994年 第1

期.

張世方, 「從周邊方言看北京話兒化韻的形成和發展」, 『語言教學與研究』, 2003年 第4期.

張衛東, 「北京音何時成為漢語官話標準音」,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年 第4期.

張衛東, 「從『語言自邇集·異讀字音表』看百年來北京音的演變」,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2002年 第13(4)期.

趙寰熹, 「清代北京旗民分城而居政策的實施及其影響」, 『中國歷史地理論叢』, 2013年 第28(1)期.

周一民, 「北京話兒化的社會文化內涵」, 『北京社會科學』, 2011年 第5期.

佐藤晴彥, 「太田辰夫先生對清代北京話研究的貢獻」, 『語言學論叢』, 2018年第58期.

史皓元(Richard VanNess Simmons) 저, 張豔紅·單秀波 역, 「“普通話”從何而來——官話、北京話和民初國語」, 『語言規劃學研究』, 2016年 第2期.

C. A. Ferguson, 「Diglossia」, 『Word』, 1959, Vol. 15, Issue 2.

William Labov,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Abstract

The Fusion of Dual City Structure and Language Stratification in Qing Dynasty Beijing

— Focusing on the Hybridity of Inner City Mandarin and Outer City Vernacular

Min, Kyung Ma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formation mechanism and hybridity of the Modern Beijing Dialect by analyzing the differentiation and fusion of language strata caused by the unique “Dual City” structure of Qing Dynasty Beijing from a historical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he “Manchu-Han Segregation (滿漢分居)” policy implemented in the early Qing period geographically and demographically divided Beijing into the Inner City, a space for Bannermen, and the Outer City, a space for Han people, inevitably leading to the dualization of language communiti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Inner City formed a “Prestige Variety” community centered on “Mandarin (官話)” that oriented toward literary norms and clarity, whereas the Outer City formed a “Vernacular” community centered on “Tuhua (土話)” characterized by oral economy and excessive rhotacization (Erhua).

However, from the mid-Qing period onwards, the deepening livelihood issues of the Eight Banners, the “Mixed Residence of Banner and Han (旗民混居)” phenomenon, and expanded exchanges in commerce and popular culture (Peking Opera, acrobatics, etc.) broke down physical barriers between the two spaces and triggered language contact. This study reveals that the Modern Beijing Dialect, formed as a result of this fusion, is a product of “Stratified Hybridity” in which the “colloquial flesh” of Outer City Tuhua is overlaid upon the “systematic skeleton” of Inner City Mandarin. The irregular variation patterns in the treatment of the entering tone (入聲) serve as concrete evidence demonstrating the antagonism and coexistence of these two strata.

Consequently, the identity of the Modern Beijing Dialect lies in dynamic

“hybridity” rather than singular inheritance or pur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that the national standard language (Putonghua) selectively inherite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Inner City, and in reinterpreting the urban space of Beijing as a “Linguistic Contact Zone” where the Inner City (Structure) and Outer City (Style) interpenetrate.

Key words : Qing Dynasty Beijing, Dual City, Language Stratification, Hybridity, Inner City Mandarin, Outer City Vernacular, Sociolinguistics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

